



충성대신보



▲ 학교 창설 제5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예와 전통을 빛내며 미래로 나아갈 '명문사관학교'

도약 100년을 향한 첫걸음, 개교 51주년 기념식 행사

도전 50년을 넘어 도약 100년을 향한 첫걸음인 개교 51주년을 맞은 본교는 지난 10월 15일, 영천시장 및 지역 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동문 선·후배, 학교 전장병 및 사관생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5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조국·명예·충용을 가슴에 새긴 가운데 지난 51년간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새 역사 창조에 결의를 다지고, 충성대 가족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 명문사관학교로 발돋움하고 지난 51년간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자축하기 위해 열렸다.

학교는 지난 1968년 개교한 이래,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를 양성하여 배출한 명실상부한 '호국간성의 요람'이다. 지난 세월동안 학교에서 배출된 정예장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주요 정책부서에서 맡은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월남전과 대침투작전은 물론, 경계 작전 및 교육훈련에 헌신을 다하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소임을 다해왔다.



이날 기념식은 부대약사 보고에 이어 ▶축전 낭독 ▶유공자 표창수여 ▶기념사 ▶주요내빈 축사 ▶분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체육활동으로 개교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날 두석주 중령 등 6명의 간부가 개교기념 유공자로 선발되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도 축전을 보내어 개교 51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기념사를 통해 "조국·명예·충용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더욱 빛내줄 것을 당부한다"며, "도약 100년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문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여 영광된 미래를 향해 다함께 전진하자"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는 지난 50여 년간의 노력으로 오늘의 명문 3사관학교를 만들어 냈듯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



명문사관학교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주간 고성진

지면 안내

- 02 학교소식 | 국가유공 자기족내사랑한미대회
- 03 학교소식 | 열정·화합·꿈, 2019 충성제
- 04 기획취재 | 주교령교 자산신탁 운용회회장
- 05 생도광장 | 충성제·체육대회 포토스케치
- 07 독자특고 | 책「국제문맹과 평화활동」소개
- 09 오피니언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 11 교양 | 건강상식·명문가를 찾아서
- 12 기타 | 발전재단 소식

2019경북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 개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도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

지난 9월 20일 본교에서는 ‘2019 경북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가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기관장 및 보훈단체장 등 국가유공자와 가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본행사, 위문공연, 충성의식 등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본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학교장(소장 장달수)의 환영사,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국가보훈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사, 내외귀빈의 축사와 만세 3창, 독립군가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위문공연은 경북도립국악단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의 아찔한 무술 시범, 성주군

합창단의 웅장한 군가합창 그리고 초대가수들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져 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부 행사는 충성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교 사관생도들이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조국수호에 대한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사관생도로서 명예와 신의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관람하면서 신구세대가 나라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가 위태로울 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본교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여러분의 나라사랑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대위 이지수



▲ 2019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한마음대회 본 행사간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충성! 사관캠프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경북지역 청소년 대상 사관캠프 개최

본교(학교장 소장 장달수)는 흥해공업고등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충성대 사관캠프’를 열었다.

‘충성대 사관캠프’는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장교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경상북도와 협약 하에 추진해오고 있는 인재육성 사업이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1박 2일간 전투복을 입고 입소식과 제식훈련, 생도 생

활관 견학, 충성대 작은 음악회, 생도들과의 대화 등 사관생도 생활을 간접 체험 하면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교관 및 조교들의 지도아래 순환식 체력단련과 유격체조 등의 군사훈련체험을 하며 심신을 단련함은 물론, 극기력과 인내심을 길렀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을 훈육했던 강준구 대위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관생도의 생활을 간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통해 각자 꿈을 향해 조금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에서 진행되는 ‘충성대 사관캠프’는 올해 고교생·대학생·다문화 청소년들이 4개 기수 900여 명이 입소할 예정이며, 그간 충성대 사관캠프’를 거쳐간 인원은 1,000여명이다.

주무관 이경희



◀ 지난 10월 10일 포항 흥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충성대 사관캠프 입소식에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3사 경제인연합회’ 창립대회 개최



▲ 창립대회를 마치고 '3경연'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사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9월 30일 ‘육군3사관학교 경제인연합회’(약칭: 3경연)의 창립대회를 총동문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2018년 11월 29일 모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40여 명의 동문 기업 대표들이 ‘3사 경제인 모임(가칭)’을 갖고, 회장(신상태, 6기)을 선임한 후 이번에 ‘육군3사관학교 경제인연합회’(약칭: 3경연)의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 1992년 8월 29일 창립이 된 이후 동문 중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동문들이 모여 상생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육군3사관학교 경제인연합회’(약칭: ‘육경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총동문회의 숙원사업으로 선정하고 3사 경제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2017년 8월 18일 현 위치(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12(신정동)에 총동문회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총동문회장(정인하, 12기)은 “3사동문의 단결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동문회 발전에 기업의 대표이신 경제인연합회에서 앞장서 주셔서 너무 마음이 든든하다. 후배들의 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3경연’ 회장(신상태, 6기)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면서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면서 힘을 모아보겠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단결이 잘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얘기했다.

56기 기자생도 유동엽



열정·화합·꿈의 충성대 Festival, 2019 충성제

개교 51주년을 맞아 4박 5일간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23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26일까지 4일 동안 '2019 충성제'를 개최했다.

학교의 전통 축제인 충성제는 사관생도를 중심으로 학교 전 장병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으로써, 젊은 사관생도들이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며 미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기도 하다.

먼저 23일 저녁 전야제 행사로 개최된 하나는행이 후원한 '합신익과 함께 하는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는 고품격 클래식 선율과 주옥같은 음악이 어우러져 품격 있고 낭만 있는 충성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4~25일 기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도들을 하나로 결집시켰다. 축구·족구·줄다리기·계주 등 다양한 체육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6학년 육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

다. 특히, 24일 야간에는 'Mr.3사' 선발, '사관생도 종합예술제', '생도 응원부·그룹사운드' 공연이 펼쳐지며 사관생도의 밤이 열렸다. 사관생도의 밤 행사에서는 각 훈육대에서 심혈을 기울인 공연들이 종합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고 4학년대의 예병찬 생도 등 약 20명이 즐겁고 유쾌한 코믹댄스 공연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 팀에게는 학교장상장과 상금이 지급되었다.

4일차인 26일에는 가족과 친구를 초청하여 충성의식을 진행하였으며, 생도생활간 틈틈이 키워온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문화체육활동체험 및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야간에는 축하 만찬과 더불어 충성제의 하이라이트인 '충성대의 밤' 행사를 통해 낭만이 가득한 가을밤의 향연이 펼쳐졌다. 특히, 충성대의 밤 행사에서는 경북도립예술단의 국악 공연과 걸그룹 볼빨간사춘기와 미드나잇의 공연이 함께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주무관 길진규



▲ '충성대의 밤'의 열기를 뜨겁게 하는 생도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있다.

前 2작전사령관 박영하 장군 초빙강연

지난 10월 4일 본교에서는 55기, 56기 사관생도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 前 2작전사령관 박영하 장군을 모시고 초빙강연을 실시했다.

박영하 장군은 1970년 3사 1기로 임관한 후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였으며, 장군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3사관학교 생도대장, 36사단장, 11군단장, 교육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역임하였다. 군 작전 전문가로서 후방 지역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발전시키는 등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공헌했다.

특히, 1971년 월남전에서 깨달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정신이 '인간중심의 리더십'으로 발전되어, 우리 군이 장병 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인성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강연은 '꿈은 이루어진다'와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관생도들이 추후 군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박영하 장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리더십 전문가이자 안보전문가로서 각종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학교와 동문을 빛내고 있다.

주무관 김민수



▲ 박영하장군이강연 후학교장(소장장달수), 생도대장(준장 고창준) 및사관생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임관 10·20·30·35·40주년을 축하합니다!

55기기자생도 박동주



▲ 임관 10주년 기념(3사 44기)



▲ 임관 20주년 기념(3사 34기)



▲ 임관 30주년 기념(3사 26기)



▲ 임관 35주년 기념(3사 21기)



▲ 임관 40주년 기념(3사 16기)

제18회 충성대 문학상 시상식 개최



▲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창설 51주년 행사 간 충성대 문학상 작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상훈·'희망'(56기 생도이가람)이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육군3사관학교장 상장과 총 6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작품은 연 1회 발행되는 육군3사관학교 교지(忠誠臺)에 실릴 예정이다.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 "장병들의 응모 작품이 해를 거듭할수록 뛰어난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며 "특히 올해는 나라사랑과 명예를 가슴에 새기며 문학을 섭렵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창작의 열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교는 지난 10월 15일, '제18회 충성대 문학상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학교 창설 51주년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시·수필·단편소설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장병 및 사관생도 5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총 495명이 응모해 일반부에서 분야별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생도부에서 분야별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시 부문 '초록경장'(23사단 대위 서영태)·'사랑 신호등'(56기 김태연 생도), 수필 부문 '행군'(국군재정관리단대위 신나라)·'있는 그대로'(56기 생도 이승훈), 단편소설 부문 '김주사의 공간'(55사단 중령

정상훈)·'희망'(56기 생도이가람)이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육군3사관학교장 상장과 총 6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작품은 연 1회 발행되는 육군3사관학교 교지(忠誠臺)에 실릴 예정이다.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 "장병들의 응모 작품이 해를 거듭할수록 뛰어난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며 "특히 올해는 나라사랑과 명예를 가슴에 새기며 문학을 섭렵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창작의 열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은 시 부문 '유격훈련'(전종혁), '전선의 대보름'(이영애), '유품(하현서)', '별'(김근대), 수필 부문 '참 좋은 시절, 아름다운 기억'(석윤희), '나의 히어로'(김정섭), '대한민국의 영웅들'(정상원), '불가능에 얽힌 방울이면'(유선영), 소설 부문 '라이프 티'(김은기), 역경자(나은철), 새로운 땅(김명훈), 일기장(전제빈)이 수상하였다. 55기기자생도 홍석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

(주)코람코자산신탁 **윤** 용 로 회장



▲ 56기 금성혁 생도(좌) · 56기 정아란 생도(우)가 윤용로 회장(중앙)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1955년 생으로 1978년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였으며 1987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금융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0여 년 공직자의 길을 걸었고, 이후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행장을 역임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폭넓은 시각을 가짐과 동시에 인덕(人德)까지 갖춘 윤용로 회장과 그의 기분 좋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후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0년 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신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코람코자산신탁 윤용로 회장입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도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현재 많은 기회를 얻으신 것처럼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된 후, 다행히 적성에 잘 맞아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 불확실한 경제시장에서는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변수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해서 현명하게 이끌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 경제학이론에서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위기가 반복됩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이 원인이라고 지적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에 거품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벤처 붐이 일었다가 거품처럼 빠지고, 지금의 공유경제도 잘 지켜보아야 한다는 시각이(특히 유럽쪽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등의 위기를 보아도 사람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할 때에 늘 ‘반면에(on the other hand)’를 이야기하니까 농담으로 외팔이 경제학자 없냐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예측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것을 극복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크게 낙담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연수원에서 동기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긍정을 뜻하는 옵티미즘(optimism)에 희미한(vague)을 붙여 베이그 옵티미즘(vague optimism) 즉, 희미한 낙관론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잘될 것이라고(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했습니다.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보직을 얻지 못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갔다고 낙담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것이 저의 삶에 대한 자세이자 힘든 일을 극복한 방법입니다.



Q 2007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되신 이후,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이자 리더의 입장에서 고민과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정부에서 금융부문을 오래 다루어서 나름대로 은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부했으나 금융의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현실을 감안했을 때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지만 공무원일 때 겪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조직을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저는 조직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는 군대만의 조직문화가 있을 것이고, 사기업에는 그 사기업만의, 공기업은 공기업만의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조직은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다양한 의

견이 조화롭게 부딪히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집단지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은행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그곳은 행장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판단만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점에 지점이 내려간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행장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Q ‘윤용로가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로 많은 재계 인사들을 인터뷰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A 제가 가장 처음 인터뷰를 진행했던 윤운수 휠라 회장이 기억에 제일 납니다. 그 분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직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출중하셔서 감동이었습니다. 휠라 한국지사로서 이탈리아의 휠라 본사를 인수하고, 세계적인 골프공과 골프용품업체인 타이틀리스트를 인수하는 등 일에 대한 열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Q 독서를 평소에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의 군을 이끌어갈 생도들에게 책 한 권 추천해주시고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평소 저는 저의 자녀들을 포함한 젊은 분들에게 하루에 책을 10페이지씩만 읽자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10페이지면 1년에 4천 페이지는 됩니다. 이렇게 60년 책을 읽는다면 24만 페이지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말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깊이부터 차이가 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작가가 힘들게 깨달은 지식과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으니 가성비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오래 공부하거나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단점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만회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이 생깁니다. 생도 여러분도 틈틈이 독서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도서는 ‘병자호란’, ‘팩트폴리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와 같은 책을 생각했는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시대 때 외침은 잦았지만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2개라고 합니다. 두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통일 되면서 명 나라를 치기 위해 우리나라에게 길을 내달라는 요구로, 병자호란은 후금이 융성하면서 명나라의 관계 때문에, 즉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G2로 재편되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 등 강대국의 관계가 급변하는 현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도분들은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역사를 되짚어보며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Q 마지막으로 사관생도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보람 있는 인생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56기 사관생도 금성혁 · 정아란

55기 기자생도 김 홍윤&신 청윤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2019 충성제

열정과 화합, 꿈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場'



▲ 충성대의 최고 몸짱을 가리는 머슬 3사 선발대회



▲ '충성대의 밤'의 열기를 뜨겁게하는 생도 장기지랑



▲ 충성대의 밤을 즐기는 사관생도들



▲ 생도 응원단 '시리우스'의 공연



▲ 자인과 함께하는 승마체험



▲ 생도들의 즐거운 오후 한때



▲ 호국정의 낭만을 즐기는 생도와 연인



▲ 작은 음악회 공연



▲ 임관 30주년을 맞이한 3사 26기 열병식



훈육대 소개: 5중대 **총무공의 후예, 이순신 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5중대를 상징하는 인물은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손에 꼽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순신은 1576년 식년무과(試年武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처음 관직에 나아가게 된다. 이후 만호, 전원보견관, 훈련원참군 등을 역임한다. 삼도수군통제사 시절,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맞서 대승을 거두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명량대첩이다.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던 중 노랑해전에서 적선을 추격하던 중에 유탄을 맞아 전사하게 된다. 이 때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마치고마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현재까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명장으로 남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총무공의 의지를 이어받은 5중대는 매사에 정진하는 태도를 갖춘 중대이다.

#2 중대가

검푸른 효사로 산길은 사나워도
우리는 3사관 악바리 총무중대
가족이 그리울땐 1만2만 헤아리고
사랑이 하고플땐 화산을 헤집는다
5중대 총무공 총무정신 이어받아
사나이 가슴에 깡닥를 새기리라
아아 나는야 청년사관
충성을 다하리라 악!



#3 훈육관을 만나다 - 훈육대장 소령 김재현



훈육대장님께서 생도들에게 원하는 리더십이 궁금하다

▲ '대인준풍 지기추상', 채근담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부하)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차게 대하라는 뜻인데, 부하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함으로 상관과 부하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명품 장교로 성장했으면 한다.



훈육대장님의 좌우명이 궁금하다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사에 일회일비 하지 말자는 자신만의 주문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 영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의 할 무어 중령이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본 영화인데 무어 중령이 한 대사 때문에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적진에 들어간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고 제일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엔 남겨두지 않겠다." 라고 부하들, 군인 가족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이 그것이다. 나도 저런 멋진 지휘관, 리더가 되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모교인 3사관학교에 지원을 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First In Last Out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험하고 어려운 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부하들이 모두 구출된 이후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이것이 리더의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1톤의 말보다 1그램의 실천이 중요하듯이 생도들이 이것을 유념하고 군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아직 5중대 훈육대장으로 온 이후로 못 해봐서 아쉬운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5중대 생도들과 22개월 간 동고동락하며 항상 '같이의 가치'를 강조하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가 보았다. 못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먼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생도들과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전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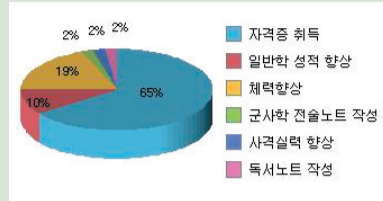
▲ 지금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동기들이며,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전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다. 선·후배간, 동기들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 그렇기에 5중대는 훈육관들을 포함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해 왔다. 내가 비록 떠날지라도 5중대는 서로 화로애락을 함께 하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한다. 비단 5중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후배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55기 기자생도 현선학

생도 앙케이트

생도들의 새로운 학기 목표



충성대 신문사에서는 '19-2차 일반 학기 진행 간 생도들의 새 학기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자격증 취득(전산, 어학, 한국사 등)이 65%, 체력 향상이 19%, 일반학 성적 향상이 10%, 군사학 전문노트 작성이 2%, 사격실력 향상이 2%, 독서노트 작성이 2%가 나왔다. 과반수 이상의 생도가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자격증취득 항목을 선택한 생도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았다. A생도는 "임관 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야전에 나가기 전에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면 야전에 나가서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부대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고, B생도는 "시간이 지나 국가를 위해 일하거나 사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생도들은 야전에서 임무에 집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체력 향상이다. 행정예규상 생도들에게는 3학년 을 마치기 전까지 1급 이상, 4학년은 특급 이상의 체력이 요구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생도들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장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일반학 성적 향상이다. 생도들이 일반학기의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이 가고 싶은 병과를 직접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일반학 성적을 잘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생도들도 많다.

기타 의견으로 군사학 전문 노트 작성에 대한 목표를 세운 생도는 "일반학기 중이어서도 군사학기에 배운 것들을 야전에서 활용하려면 정리하는 것이 미래에 위해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번 앙케이트에서 보듯이 생도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여러 목표를 스스로 정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생도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미래에 훌륭한 장교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생도들이 세운 멋진 목표를 잊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침없는 박수를 보낸다.

56기 기자생도 송승환

생도칼럼

양성평등위원회 소개



생도 고은비 (55기/양성평등위원장)

올 해 부터 생도자치회의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본교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출범에서 비롯되었다. 국방부의 양성평등위원회는 성인 지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민주적 군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3일 발족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생도 상호간에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육군의 정예장교가 될 생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니고 올바른 성인지력과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문화 조성고 정착,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갈등 중재를 주요한 역할로 삼고 활동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전원은 매주 양성평등기본교

육과역할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중재, 양성평등 상담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위원 생도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양성평등 점호를 주관하고,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호 간 견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월 양성평등회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양성평등 슬로건을 선정하고, 양성평등 관련 상담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생도대에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양성평등 4행시 짓기 대회, 독후감대회, 성인지력 향상 발전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생도대에 신설된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개선방안을 생도들의 행정예규에 반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육군의 정예장교가 될 생도들이 올바른 성인지력과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독자투고

피로 지켜낸 땅의 사관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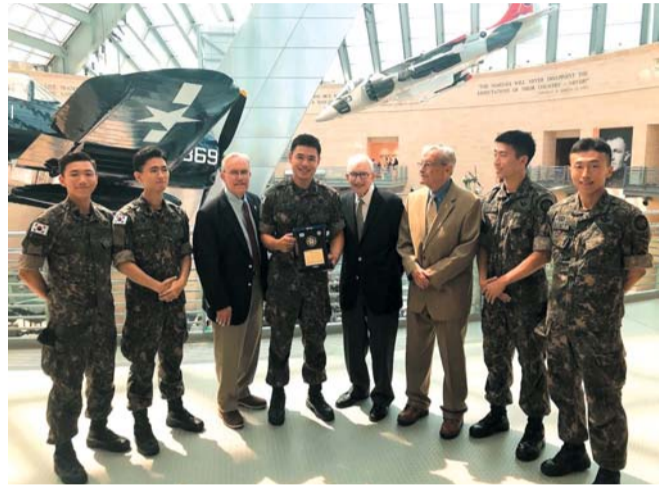
생도 박진우(55기)

국가 방위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천의 뜨거운 여름과 맞서 싸웠던 본교 4학년 생도들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문무탐방의 여정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버지니아 군사대학(Virginia Military Institute) 출신의 정문경 생도를 필두로 박진우, 이승환, 박형우, 윤세진 생도 총 5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피로 맺어진 동맹국, 미국에서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행 한 달 전부터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드렸다. 미국 해병대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Marine Corps)에서 만난 6.25 전쟁 참

전 용사들인 예비역 중장 Shutler, Olmstead, 예비역 대령 Wiedhahn은 당시 미 해병대 소속의 군인들이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그들에게는 낯설었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뒤로한 채 군장을 쓰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들도. 당시 막 훈련소를 마쳤던



Olmstead는 그 때를 회상하며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텐더가 내게 빨리 기지로 돌아가라고,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말

했다.이때는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되었고, 몇 주 후 인천상륙 작전에 투입되어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그들에게 쉴 틈없이 밀려오는 중공군들보다 무서웠던 것은 영하 40도의 살을 에는 추위였다고 한다. 당시 전우가 총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할 줄 알았으나 피가 얼어 살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이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싸우고 움직이게 한 계기가 무엇인지 묻자 그들의 대답은 명료했다. “Determination to win and survive.” 무조건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투지, 동료들에 대한 신뢰,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사관들의 조언. 이러한 요소들이 낯선 땅,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싸울 힘을

주었다고 한다. 그들과의 만남은 사관생도로서 이제 막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워싱턴 DC의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이 선배 전우들의 뼈아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또한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이 있듯이 천하가 평화롭더라도 전쟁에 대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위태롭다.

장차 국방의 기둥이 될 사관생도인 우리는 선배 전우들의 소중한 피와 맞바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항재전장의식을 겸비하여 철저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전투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신독’의 자세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소홀함없이 정진해 나가야 한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호국 간성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책 소개

국제분쟁과 평화활동

제1저자: 박동순 / 공저자: 구형희



70억 인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오늘의 세계는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존재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에선가 유혈 충돌이 벌어져 무고하게 사람이 죽고 다친다.

한 해 동안에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무력 분쟁이 해마다 15건 쯤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무력 분쟁은 언제나 약한

자와 소수자, 못가진 자들의 한숨과 눈물, 희생과 고통으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와 역사학자, 그리고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의 원인에 관한 이론과 처방을 내놓으면서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국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분쟁의 전반적인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먼저 ‘산’을 보기 위해 국제체제와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과 변화의 흐름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숲’의 단계에서는 국제분쟁의 원인 및 유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감나게 제시했고 교섭과 중개, 조정과 국제법원 등 분쟁해결의 기제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이어서 ‘나무’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활동과 동북아 및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관리 등에 대해 기술했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4대 강국들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들을 조망해 보았고, 그 범위를 다시 한반도로 좁혀 한국과 북한의 특수적 관계, 6.25전쟁과 정전체제 등과 주변국과의 독도와 이어도 분쟁,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 등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게 될 쟁점들의 최신 사례와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평화활동에 대한 소개를 한 것은 이 책의 큰 특징이다. 한국은 UN의 탄생과 함께 인연을 맺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가장 밀접하게 되었다. 1991년 UN의 회원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평화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통일의 과정에서 UN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역할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 평상시의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동참은 마치 보험금을 적립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의 어디선가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류가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분쟁의 원인과 형태 및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과 지혜가 요구된다. 이 책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와 지구촌의 평화를 가로막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과 분쟁의 해소를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일반인들에게는 국제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로, 그리고 군과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안보와 평화활동 업무에 대한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5기 기자생도 고명환



사설

가을 단상

모처럼 맑고 청명한 가을 날 호국정을 거닐다가 노래 한 소절이 떠올라 흥얼거려본다.

“그대 사랑 가을사랑 ~ 단풍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사랑 ~ 낙엽지면 그대 가네”

중략

“아~ 가을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가을 내맘 아려나”

신계행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이라는 노래이다. 웬지 가을을 보내기 애 뜻한 마음을 담긴 것 같은 노래이다. 가을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가수는 가을이 가고나면 오는 혹한의 겨울이 싫어서 가을을 붙잡으려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가을 우리 충성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붉게 물들기 시작한 충성대의 단풍을 보며 가을을 실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힘차고 푸른 기상이 넘쳐나던 충성연병장의 잔디가 황금빛 물결로 일렁이는 모습을 보며 감성에 젖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깊어 가는 가을날 낭만과 사색에만 젖어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성연병장 성화대 밑에는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이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적어도 조국을 생각하고 국가방위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면 가을의 낭만도 좋지만 조국을 향한 가슴 뜨거운 열정을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어느덧 창설 51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는 이제 장년의 반열에 들어섰다. 인생에 있어서도 50은 불혹의 나이이다. 장년으로서 사회의 책임 있는 지위에 올라 젊은 시절 쌓아왔던 지식과 경륜으로 국가사회를 이끌어 감은 물론, 인생의 대소사를 치루고 나뉘 성과 있는 결실과 소득을 얻어야 하는 때이다. 청년 때에 분주함과 열정은 차분함과 완숙함으로 대체되고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는 사회의 큰 자산이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올해로 개교 51주년을 맞이한 학교도 지난 50여 년 동안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서 소임을 다하고자 쉽 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을 딛고, 이제 명실상부 최고의 명문사관학교로서 우뚝 서기 위한 도약의 길을 가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까지는 주어진 안보환경과 군내 여건 속에서 부여된 소임완수에 매진하였다면, 앞으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보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에 적극 나섬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무인로봇, 생명공학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되도록, 권위와 위계에 의존하던 낡고 오래된 리더십을 벗어던지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생도들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 학문을 중심으로 교과체계를 개편하여,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첨단 과학화 군의 리더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특히, 변화무쌍한 전장 환경 속에서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심을 통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길러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생도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도록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가을은 한해의 결실을 거두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가을이 가고 겨울의 혹한이 지나면, 따스한 봄기운에 새싹들이 자라서 온 산하를 푸름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개교 51주년을 맞이하여 장년의 완숙함을 갖게 된 만큼, 그동안 이루어낸 결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가을을 맞은 우리 충성대 가족 모두가 지나온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조국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래도 이 가을! 낭만을 즐기고 싶다.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

충성대 칼럼

대위 권지민(군사교양학처 윤리학(북한학)과장)



본교 북한학과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후, 나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수학하는 동안 대방역 앞에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하는 대방동 아파트에서 살았다.

최전방 JSA에서 30개월 넘게 근무하다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어 설렘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학교와 도서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수험생 생활을 하였다.

원문 자료 리딩, 발제 준비 등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때쯤 가족의 추천으로 집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인 노량진에 가게 되었다. 말로만 들던 노량진은 역시나 사람이 북적였다. 외국인 관광객부터 국내 여행객까지 노량진 컵밥 거리를 즐기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 다투어 줄을 섰고, 일부 유명한 가게 앞에는 끝이 어딘지 쉽게 가늠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차지하기 위해 1시간 일찍 들어가는 거란다. 학원은 7·9급 공무원 준비 학원이었다.

2019년 현재 본교 4학년 생도들은 약 72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매달 국가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생도생활 중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경비와 의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무엇보다 생도생활을 잘 이겨내면 오만족광에 빛나는 별정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수업시간에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생도들에게 소개하곤 하는데 모든 생도가 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칼럼을 통해 생도들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생도들이여, 현재 국가와 본교인 3사관학교



우리 가족도 나온 김에 그 유명한 컵밥이나 먹어보고 가려고 어느 컵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는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컵밥이란 주로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의 컵 속에 밥을 넣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거리를 얹은 덮밥이다. 노량진에는 공무원, 대기업 등을 목표로 한 학원가가 즐비해있는데, 학원의 수만큼 많은 고시생들이 수험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량진의 고시생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이유와 조금이라도 빨리 식사를 하려는 경향이 만나서 지금의 컵밥 거리가 탄생했다.

나는 단순히 ‘노량진의 컵밥 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찾았지만, 그곳의 고시생들은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컵밥을 시켜 여유있게 맛을 보며 가족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때 옆에 앉아서 컵밥을 먹고 있던 여학생이 아직도 기억난다.

식사를 하면서도 영어 단어집이 시간차로 넘어가고 있었고, 밥은 먹고 있지만 눈은 단어집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다 먹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빠른 걸음으로 학원 건물로 들어갔다. 컵밥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유명한 선생이 가르치는 수업 때는 명당자리를

가 귀관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귀관들이 헛되게 쓰는 하루, 한 시간, 일분일초가 같은 또래의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며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흘러간 시간이다. 본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길 바란다.

외박 간 노량진 컵밥 거리를 가서 수험생들의 생활을 보고 오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입학하기 전의 귀관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곳 3사관학교가 귀관들에게 주는 기회와 혜택만큼 귀관들이 본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길 바란다.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나는 월 72만원씩의 품위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나는 3사관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교수이자 선배로서 우리 생도들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명품 사관생도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니체의「비극의 탄생」과 나의 삶

시인 저명인사 칼럼

김재 춘(現 영남대학교 교수, 前 교육부차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육군3사관학교! 내 삶의 주름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30년 이상 지났건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예비역 사관생(예사11기) 후보로 입교하여 6개월에 걸친 장교 훈련을 받았던 곳이다. 특히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5일에 걸친 200km 행군이었다. 가을의 높은 하늘을 이고 아름답게 채색된 과수원 길과 논길 등을 걸으면서 '고통 속의 환희'를 느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군화 속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차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걷는 행군의 과정에서 뜨거운 열의 발산과 함께 고름이 자연스레 치유되었던 기억은 나에게 '고통 속의 환희'의 사건이었다. 필자는 최근 철학자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재밋게 읽었다. 이 책은 오래 전에 경험했던 '고통 속의 환희'를 다시 소환했다. 인간이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찬 삶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나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던 니체는 그리스 비극에서 그 답을 찾았다. 모든 개체는 존재 그 자체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탄생, 성장, 몰락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몰락

이라는 개체의 고통스런 해체는 새로운 개체의 출현을 예기하는 데서 오는 비극적 쾌감을 낳는다. 니체는 아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이 고통으로부터 우리 삶을 구원해 준다고 말한다. 요컨대, 고통과 모순으로 채워진 우리 삶에서 예술을 통해 기쁨과 환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를 지닌다. 3사관학교에서의 훈련 시절 훈육대장의 말 중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 여

받은 여러 혜택을 기억하며 국가, 사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리고 군인의 삶을 포함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긍정하자.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다른 원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영천과 이웃한 경산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다. 캠퍼스와 주변 숲 위로 휘날리듯이 내리는 비가 어찌 이리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가? 구질구질할 수도 있는 비가 이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

내가 받은 여러 혜택을 기억하며 국가, 사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긍정하자

러분은 6개월 훈련 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예비역 사관후보생으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본 군인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라는 말이었다. 전역 후 3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 때 들었던 훈육대장의 말은 내 삶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통과 모순에 가득 차 보이는 삶일지라도 내가

문일까? 이웃 영천의 3사관학교 캠퍼스에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한다. 고통 속의 환희! 비 내리는 어느 가을날, 3사관학교에서의 아련한 추억과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비를 뚫고 차를 몰아 3사관학교로 달려가 볼까? 마음은 이미 3사관학교로 향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면서.

지능과 감각 사이 II : 청각에 대하여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④

제갈덕주(꿈창작연구소 소장)



청각 연구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소리'는 언어를 이루는 양대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주로 '언어학' 연구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음성 인식'이 이에 해당한다. '음성 인식'은 소리를 '주파수'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초창기 음성 인식에서는 물리적 소리를 어떻게 하면 심리적 소리와 대응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고민 끝에 주파수를 활용하여 소리를 그래프로 시각화 해내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것을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이라고 부른다.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를 보여준다. 각각의 '자모'는 다양한 주파수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도 특정 영역대의 소리가 많을 때 'ㄱ', 'ㄴ', 'ㄷ', 'ㄹ' 등으로 식별가능하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음절 말에서 발음되는 공명음 'ㄴ', 'ㄹ', 'ㄷ', 'ㄹ'을 식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단어'들의 소릿값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밤눈이 어둡다'에서 '밤'은 받침 'ㅁ', 'ㄴ'을 가지고 있는데, 'ㅁ'과 'ㄴ'을 각각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ㅁ-ㅁ-ㅁ-ㅁ-ㅁ-ㅁ-ㅁ'으로 연속된 경우는 제한적이라 종합적 소릿값을 저장해 두면 식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에 '빅데이터'와 '딥러닝'이 결합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의 음성 판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 기술이 최근 '파파고'에 탑재되어 외국어 자동 통역의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군사학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은 '감청'이다. '소리'의 '전산화'와 '전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화'와 '감청'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통

화'는 서로 합의된 사람 간에 이루어지고, '감청'은 합의되지 아니한 사람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때 소리는 공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음'만 추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통화'에서는 '기기(디바이스)'에 인접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감청'이나 '도청'의 경우 발화자가 '기기'와

소'인지를 식별해 내는 '의미 해석' 기술이 추가되었다. 페이스북은 몇 해 전 게시물을 작성할 때 주변의 소리를 분석해서 장소 정보를 자동으로 태그해 주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 사용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감청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술은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안보 기술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악용되면 빅브라더가 된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음'만 추출해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언어음'에 해당되는 것만 식별해서 '가중치'를 주게 되면 전송된 수신음에서 그 소리만 더 증폭되어서 출력된다. 최근에는 이 기술에 맥락 정보를 결합시켜 특정한 소리가 많이 날 때 어떤 '장

이러한 기술이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되면 모든 공간이 감청 영역대가 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안보 기술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악용되면 빅브라더가 된다. 바야흐로 기술과 윤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전쟁과역사 <5>

장사리의 영웅들 : 장사상륙작전



기자생도 강재원(55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은 시작되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은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나 국군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 결국 잘 훈련된 병력과 충분한 물자를 가졌던 인민군에 의해 개전 초기, 대한민국 전 영토는 초토화되었고 국군은 낙동강에서 방어선을 형성한 채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아 필사적으로 인민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열세였던 전장상황을 뒤집고자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작전명 '크로마이트'라고 불렀던 인천상륙작전을 지시한다. 작전지역이었던 인천은 지리적으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 상륙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적의 요충지이므로 감시가 삼엄한 곳이라 상륙이 어렵다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수도였던 서울을 탈환할 수 있다는 이점에 주목하며 작전을 강력히 추진한다. 작전 시행에 앞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적을 기만하기 위한 양동작전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바로 1950년 9월 14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일어난 '장사상륙작전'이다.

많고 많은 지역 중 장사리가 선택된 이유는 보급로 차단에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장사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면 낙동강 전선을 포위하고 있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적들의 보급로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양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기도 했다.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는 작전명 174호 즉, 장사 상륙작전을 지시하게 된다. 그러나 부대를 구성하기에는 국군의 역량이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낙동강 전선을 최후의 교두보로 삼게 되면서 전선의 후퇴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었기에 작전부대원 772명 중 677명을 학도병으로 구성하여 작전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도병으로 훈련기간은 2주에 불과했으며 자원 또한 치열한 전장상황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급된 전투복과 무기는 모두 노획 물자였으며 수량 또한 부족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였으나 장사 상륙작전 부대는 9월 13일 오후에 상륙함 '문산호'에 부대원을 싣고 장사리로 출항하게 된다.



▲ 장사상륙작전 당시 '문산호'

문산호는 9월 14일 새벽 상륙지점에 도착하나 태풍으로 인한 강한 풍랑과 적의 강력한 대응에 의해 좌초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학도병 중 60여명의 희생으로 배를 해안가의 소나무와 바줄로 연결하면서 상륙에 성공한 후 전투를 실시한다. 전투는 성공으로 끝나게 되고 3일간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또한 인민군이 국군의 2개 연대가 동해안에 상륙했다고 믿을 정도로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서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작전일인 3일이 지났는데도 학도병들은 장사리에서 철수할 수 없었다. 그들을 싣고 왔던 문산호는 좌초되었으며 통신이 되지 않아 구조요청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대는 3일간의 물자로 부산으로 후퇴 할 때까지 8일 동안이나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심지어 후방을 차단당한 인민군이 2개 연대규모의 부대와 전차4대를 동원하여 장사를 공격하는 상황에 처하자 적에게 고립된 채로 적과 맞서 싸우게 된다.

결국 예정된 작전 종료일보다 5일이 더 지난 9.19일이 되어서야 유엔군은 '조치원호'라는 또 다른 상륙함을 장사로 보내어 상륙부대를 구출작전을 진행하게 된다. 허나 문산호 때와 마찬가지로 적의 거센 공격과 기상악화로 인해 온전한 구출작전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해변에서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던 후위 부대원들의 희생으로 모든 인원을 구출하지 못한 채 해변에서 철수하게 된다. 이후 남아있던 40여 명의 부대원들은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으며 10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작전에서 실종 및 전사하였다.



▲ 트럭을타고 전선으로 향하는 학도병들

맥아더 장군이 직접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이외에도 적군 270명 사상에 포로 4명을 붙잡았으며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여 적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등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 이 모든 것은 열악한 지원과 예정을 넘겨 지속된 전투 속에서도 스스로를 희생하며 적과 맞서 싸운 어린 나이의 학도병들 덕분이었다. 이들의 희생으로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발판이 완성되게 되

634 메아리

(5) 마태석



었고 열세였던 전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지역문화탐방 <4>

영덕 블루로드를 방문하다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을 가진 해파랑길의 영덕 블루로드로 도보여행을 시작하였다. 영덕 블루로드는 쪽빛파도의 길과 빛과 바람의 길, 푸른대게의 길 그리고 목은사색의 길까지 총 64km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 바닷길을 따라 아름다운 숲길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남쪽에서 출발하는 도보여행자는 바다를 길동무 삼아 길을 걷는 쪽빛 파도의 길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대게 공원의 높이 15m, 너비 36m의 커다란 대게이다. 영덕을 상징하는 대게의 웅장하고 당당한 모습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옮기면 울창한 송림 사이로 시

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장사해수욕장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 영덕 대게누리 공원

지친 몸과 마음이 파도에 씻겨 나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해수욕장의 풍경 반대편에는 장사상륙작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작전이다. 그 당시 배가 좌초된 상황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산화한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과 전적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가슴속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영덕 호국 전시관 문산호

장사해수욕장을 떠나 고개를 돌리면 조용하지만 크고 작은 배들이 바쁘게 오가는 구계항의 모습이 보인다. 쌀쌀한 날씨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남호해수욕장을 지나 숲과 바다가 만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 속이 훤히 보이는 삼사해상 산책로가 기다리고 있다.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이 길은 동해안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산책로의 멀지 않은 곳에 삼사해상공원이 있다. 삼사해상공원은 1월 1일 새해맞이 일출 행사와 3월 영덕대게축제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원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에 가족들이나 친구,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영덕 삼사해상공원

비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와 만나고 하늘을 접하는 블루로드의 쪽빛 파도의 길을 여행하면서 휴식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56기기자생도 권정우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독감

건강상식

병원 내과군의관대위 고휘인



8월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것이 었 그제 같더니 9월이 지나가는 요즘 밤공기는 쌀쌀하다 못해 춥기까지 하다. 환절기의 병원에는 어김없이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복재통을 이룬다. 이맘때쯤이면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었지만 꼭 겨울에 감기에 걸린다고 불평하는 분들,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독감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태세를 갖추어 올 한해도 큰 유행 없이 무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독감'이란 명칭에서 흔히들 '독한 감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감기'란 라이노바이러스를 비롯한 수백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을 통칭한다. 따라서 '독감'과 '감기'는 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질환인 것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형에 따라 A, B, C형(type)으로 분류되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항원인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에 의해 아형(subtype)이 결정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변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크고 작은 항원 변이가 거의



매년 일어나며 이러한 항원 변이로 인해 인플루엔자의 유형이 초래된다. H2N2→H3N2처럼 새로운 HA나 NA로 바뀌는 것을 '항원 대변이'라고 하고,

동일한 인플루엔자 아형에서 점상 돌연변이로 약간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항원 소변이'라고 한다. 항원 대변이는 A형 인플루엔자에서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아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일반인구에서 면적이 없으므로 전세계에 걸친 대유행(pandemic)이 일어나며, 이러한 대유행은 10-40년 주기로 발생한다. 항원 소변이는 A, B형에서 거의 매년 일어나며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seasonal epidemic)의 원인이 된다.

독감의 임상 양상으로는 무증상 감염 및 합병증이 없는 상기도 감염에서부터 바이러스성 폐렴 및 다장기부전과 같은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상은 주로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코 막힘, 인후통과 같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며 근육통, 두통, 무력감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합병증은 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에서 주로 나타나며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세균성 폐렴으로 나타난다. 치료는 대증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가능하나 대개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그렇다면 독감에 대해 흔히 하는 질문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Q1.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절대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백신을 맞은 후 면역력이 생기기 전인 2주 내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독감을 60%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Q2. 건강한 성인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는 필수로 맞아야 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독감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합병증 없이 쉽게 회복하지만 앓는 동안 다른 접촉자에게 전파시킬 수 있어 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는 비말로 전파되는데 특히나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경우 더욱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Q3. 백신 때문에 독감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다. 보통 우리가 맞는 독감 3가, 4가 백신은 이미 죽었거나 활성을 잃은 바이러스로 독감을 일으키지 못한다.

Q4. 항생제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듣지 않는다.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㉔ 영천(永川) 지역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서

가을임을 알리는 아침의 쌀쌀한 날씨와 여전히 높은 한낮의 기온이 뒤섞여있는 초가를 어느 날 명문가를 찾아서 올해 4번째 주인공들을 찾아 나섰다.

3.1운동과 관련된 영천의 인물을 찾던 중 홍종현(洪鍾顯)선생과 조병진(曹秉鎭)·조재복(曹在福)·조주환(曹周煥) 선생 등을 소개받았다. 학교에서 9시 쯤 출발해서 전민욱 선생을 모시고, 화북면에 있는 오동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오동공원은 학교에서는 대략 25분 정도 거리로 보문산 천문대를 가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영천시내는 한약 축제 첫째 날이라 어디를 가나 활기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홍종현 선생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내문(乃文). 호는 치당(痴堂)이며, 1890년 지금의 군위군 군위를 외랑리에서 태어나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로 이거하였다. 홍종현 선생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조병진 선생 등과 함께 영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붉은 깃발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1919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경 1천여 명의 장꾼이 모이자 당시 창구동 소재 영천공립보통학교 앞에서 태극기와 독립

만세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군중이 호응하여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마침 순찰 중이던 순사보 김배석(金拜石)에게 체포되어,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1926년 6월 10일의 융희황제의 국장일(國葬日)에는 송인동 83번지의 노상에서 혈서를 쓰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으며,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조병진 선생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진원(進元)이며, 1891년 지금의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에서 태어났다. 조병진 선생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홍종현·조재복·조주환 선생 등과 함께 영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1919년 4월 12일 영천 장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조병진 선생은 같은 해 5월 8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태(答) 90대를 받고 불구의 몸으로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지역의 후학들에게 독립 사상을 주입하는 등 계몽 운동에 앞장

섰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두 분의 업적을 기리어 2005년 5월 영천항일운동선양사업회에서 영천시 화북면 오동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영천시 화북면 오동마을은 두 분의 애국지사 이외에도 다른 여러 애국지사들의 추모비가 함께 건립되어 있다. 더욱이 대표적인 항일 애국지사인 이육사 선생의 처가가 오동마을이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지역 못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천의 3.1운동은 인근 신령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거친 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령 최재호



▲ 홍종현·조병진 애국지사 추모비



▲ 조재복 선생 애국지사 추모비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19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9.8.16~9.30 기부현황 / 10월은 홈페이지 참조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74억 6,600만원 (2019.9.30 기준)

■ 단체/일반시민 : 2기 동기회 500(1,100), 4기 동기회 1,000(2억 4,856), 조재 목5(200)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軍간부

정한기(육사#39) 2(75), 최원규(육사#44) 1(4), 김호길(육사#48) 1(30), 홍성아(육사#48) 1(15), 김태욱(육사#51) 1(7), 두석주(육사#51) 2(139), 최정욱(육사#51) 1(9), 이우진(육사#54) 1(41), 박기홍(육사#55) 1(101), 이승규(육사#56) 1(22), 조상근(육사#56) 1(115), 변용성(육사#58) 1(80), 손창호(육사#58) 2(49), 이귀현(육사#58) 1(74), 이주실(육사#58) 1(59), 차도원(육사#58) 1(33), 김대영(육사#59) 1(141), 김진찬(육사#61) 1(44), 홍희중(육사#61) 1(76), 이한우(육사#63) 1(4), 오민경(육사#65) 1(19), 홍인재(육사#65) 1(9), 최병권(육사#66) 1(8), 문준호(육사#67) 2(24), 이천우(육사#68) 1(19), 권성진(육사#69) 1(7), 부형준(육사#69) 1(34), 조경근(육사#69) 1(2), 이진호(육사#24) 1(62), 한덕수(육사#26) 1(76), 고성진(육사#31) 1(10), 구희권(육사#32) 1(83), 유명근(육사#36) 1(58), 전성권(육사#36) 1(45), 박홍렬(육사#37) 1(9), 송경재(육사#37) 1(103), 조환희(육사#41) 1(17), 황태열(육사#41) 101(132), 김재운(육사#43) 1(31), 김광윤(육사#44) 1(29), 이종민(육사#44) 2(5), 김태홍(육사#48) 1(21), 이세훈(육사#48) 1(2), 민병구(육사#48) 1(9), 김민범(육사#49) 1(3), 박동선(육사#49) 1(5), 윤정훈(육사#50) 1(6), 김동진(육사#51) 1(29), 구민수(육사#52) 1(62), 유강민(육사#52) 1(21), 황기영(육사#54) 1(14), 박주오(육사#7) 1(92), 최재호(육사#29) 1(103), 최용식(육사#33) 1(5), 이준수(육사#35) 1(87), 장혜익(육사#46) 1(4), 김영각(육사#49) 1(21), 김효곤(육사#49) 2(7), 김미봉(육사#54) 1(33), 임도현(육사#54) 1(82), 구주현(육사#55) 1(5), 이혜지(육사#55) 1(27), 성현애(육사#56) 1(25), 전여울(육사#58) 1(33), 심정현(육사#58) 1(13), 차성복(육사#45) 1(139), 최순조(육사#46) 1(32), 서나현(육사#47) 1(22), 강소영(육사#49) 1(16), 이희정(육사#49) 1(16), 김형태(육사#22) 1(33), 김세영(육사#28) 1(22), 박승재(육사#30) 1(7), 강찬영(육사#61) 1(9), 정영진(육사#18) 1(15), 최우혁(육사#18) 1(15), 최윤정(육사#38) 1(18), 이각우(육사#1) 1(33), 전경익(육사#1) 1(47), 우의택(육사#1) 1(58), 진장철(육사#1) 1(52), 전병열(육사#1) 1(22), (군무원) 김영진(육사#1) 1(57), 김민수(육사#1) 1(5), 류재운(육사#1) 1(71), 안영주(육사#1) 1(21), 양병우(육사#1) 1(43)

■ 신분미확인 : 김시우 1(2)

졸업·재학생도 부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이창주(42부)2(244), 김준승(45부)4(10), 조경해(45모)10(695), 장순일(49부)2(250), 성동모(50부)4(160), 윤우상(51부)1(67), 정경숙(51모)2(68), 안순봉(51모)10(160), 김현미(52모)2(25), 이선화(52모)5(510), 이영미(52모)6(229), 정정화(52모)2(319), 박일심(53모)2(80), 조정숙(53모)4(80), 홍성기(53부)1(43),

황경부(53부)20(430), 김동주(54부)2(6), 윤명남(54모)10(150), 이기성(54부)3(94), 홍성은(54부)2(214)

4학년 학부모(가나다순)

※개인기부액확인(www.kaayfor.kr)/내기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창희, 김상근, 김동환, 박철, 서원수, 양종호, 유현구, 윤연희, 이강천, 임종철, 전근화, 정수태, 정신자

3학년 학부모(가나다순)

고경옥, 강창희, 김영기, 김종기, 김효수, 나취수, 노윤섭, 맹현주, 손화식, 이수홍, 이용계, 임동근, 정영환, 정희숙, 천병수, 황태구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 ▶ 1기 김용하 2(109), 임관택 1(57), 전수찬 2(74), 최익환 1(59)
- ▶ 2기 윤영혁 10(520)
- ▶ 9기 권영호 10(285), 김현기 10(1,103), 윤지환 6(75), 최병학 10(1,120)
- ▶ 13기 박영제 30(30)
- ▶ 14기 김중환 2(34), 안호 10(1,590), 이순진 10(599), 하병욱 2(348)
- ▶ 15기 조서환 10(110)
- ▶ 16기 이종우 2(137), 황병태 4(272)
- ▶ 18기 구연덕 2(106), 금용백 3(501)
- ▶ 19기 이경희 2(150), 이종형 1(214), 이창호 3(507), 임종철 1(42), 홍성식 1(175)
- ▶ 20기 김윤희 2(44), 박권순 2(125.4), 서정열 10(415), 조길상 4(48)
- ▶ 21기 김창희 200(200), 신철수 4(500), 장달수 1(84)
- ▶ 22기 권순태 1(29), 이진성 1(237), 정경호 2(22), 조태환 1(113), 홍성덕 5(166)
- ▶ 23기 김창수 2(194), 김태일 2(206), 배요식 1(119), 신영찬 2(49), 정철재 2(90), 허강수 1(198)
- ▶ 24기 박종민 2(6), 권광락 2(238), 권오봉 2(191), 김도협 1(209), 김지영 58(374), 김경호 1(79), 남용구 3(239), 모경원 1(204), 박세철 1(48), 방성대 1(58), 안연준 2(72), 이문희 2(72), 정정현 1(168)
- ▶ 25기 김남욱 1(111), 김민정 1(119), 김희식 1(188), 문봉성 1(129), 서쌍권 1(43), 손영기 1(109), 이상복 1(14), 이종현 1(28), 장광선 3(309), 장무수 1(26), 전창호 10(160), 전희준 1(282), 조재희 1(100), 홍은표 1(178)
- ▶ 26기 고창준 1(125), 김영선 2(374), 박윤옥 2(183), 신충인 2(153), 신태영 1(86), 유근환 2(12), 이원주 4(85), 이태인 2(16), 임우영 1(221), 장용민 2(84), 홍순범 1(187)
- ▶ 27기 김덕중 1(45), 김호복 1(177), 석수열 2(24), 안병욱 1(146), 원희문 5(130), 이희순 2(217), 정월균 1(4)
- ▶ 28기 권승영 13.5, 권양철 1(85), 김진길 1(57), 박기수 1(68), 박용섭 2(127), 서정수 1(149), 유정일 1(18), 윤석찬 2(118)
- ▶ 29기 김강식 1(222), 김용식 1(51), 박성훈 1(130), 박태용 1(109), 이상일 1(166), 이상태 4(184), 이의규 1(92), 임성호 1(141), 최인섭 1(103), 현태식 1(127)
- ▶ 30기 김백중 1(15), 김종권 1(61), 김호성 1(21), 남진오 1(32), 이진 1(126), 임상달 1(96), 주경호 2(91), 홍성범 1(14), 함민호 1(77)
- ▶ 31기 권동호 2(16), 김민식 2(52), 김영태 1(158), 김희업 1(203), 엄향수 2(113), 이재춘 1(187), 이흔복 1(25), 최대집 1(23), 류광현 1(14), 전영인 1(10)

▶ 32기 권관덕 3(266), 김화용 1(90), 이태현 1(25)

▲ 33~54기 개별 기부현황은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또는 『충성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9년 학교발전기금 목적사업

귀하의 소중한 성정이 아래와 같이 학교발전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지원액(원)	비고
교육 증진		
해외견학 장학금	109,500,000	생도대
우수생도 장학금	8,500,000	생도대
일반학생사학식 지원	4,000,000	교수부
생도주요군사훈련 지원	6,300,000	생도대
대외경연대회참가팀 지원	1,500,000	생도/참가팀
입시 홍보		
생도모집홍보비	21,700,000	
예비생도교육비	6,800,000	학교평가실
홍보달력제작	10,500,000	
기타 사업		
명예생도/언론홍보	1,600,000	정훈공보실
교외단체초청홍보	1,700,000	학교지원처
목적사업추진/기금확득	8,500,000	우편/인쇄
계	180,600,000	

학교발전기금 참여 안내

■ 기부참여 계좌 :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업/개인명의 기부가능, 세금감면용 기부영수증 발급

참여방법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재화
- 계좌입금 후 재단으로 관계 및 주소/연락처 통보
- 최초 기부자는 관계통보 필수(동명인 혼선 방지)
- 기부방법 : 일시불, 익정 후 분할, 월차등이체 모두 가능
-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용 금융아플 이용, 은행방문 신청
- 충성대앱 이용 신청 가능(신청 후 관계 통보)

■ 문의처 : (군) 952-3180 일반) 054-330-3180, 3182

홈페이지 www.kaayf.or.kr,

“충성대” 앱(APP)

“학교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극기로 배운 교훈, 제자사랑으로 실천하다

올해 7월 첫날 학교 불어교수로 재직 중인 차성복 소령(여군45기)으로부터 문자 한통이 도착했다.

자신의 2019년 버킷리스트 실천에 마라톤폴코스 도전이 있는데 자신이 뽀 1km당 5천원씩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그간 실천한 64km 해당액 32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10월에도 그동안 부산, 경주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 93km를 뛰고 학교발전기금 50만원을 추가로 보내

왔다.

차교수가 이런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교수인 자신의 도전이 생도들에게 “한계란 자신이 만들고 그 한계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극복된다.”란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간절한 희망을 밝혔다.

차교수의 실천은 학교발전은 타인이 아닌 내가 실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어질 제자사랑을 담은 그녀의 거침없는 질주에 감사를 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3사44기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지난 10월 11일 10년 만에 44기 졸업생들이 모교를 찾았다.

영천 특유의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학교 전 장병들과 후배생도들의 환영 속에 성대히 임관10주년 행사 개최하였다.

44기 총동기회장 이견우 소령(진)은

생도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학교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재단이사(사무국장(김호길 대령)에게 학교발전기금 1천만을 전달하였다.

44기 학교발전기금 기부총액 2억 4,856만원



“도약 100년! 학교발전기금 동참이 그 첫걸음이 됩니다!”

